

과수화상병을 첫 발생...확산 차단 총력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주의' 격상

농촌진흥청은 충북 충주시 한 사과 과수원(0.22ha)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 시 잎과 꽃, 가지 등이 붉어 탄 듯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번 발생은 정기 예찰 기간(5월 1~15일) 중 농가 신고로 처

음 확인됐다. 5월 14일 현장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충북농업기술원의 정밀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됐다. 해당 과수원은 지침에 따라 공격 방제로 매몰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충주시농업기술센터와 관계기관,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19일까지 발생지 반경 2km 이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해 확산 차단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발생 지역에서 수집한 의심 시료를 신속히 분석

하기 위해 현장 진단실도 가동하고 있다. 또한 15일에는 관계기관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규모는 135개 농가, 55.4ha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체 사과·배 재배 면적 대비 0.1% 수준에 그쳐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도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수준의 발생이 예상된다"며 "미발생 지역에서도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 안내를 통해 농가 참여를 독려했고 있다.

아울러 식물방역법에 따라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를 지연합 경우 손실보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도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수준의 발생이 예상된다"며 "미발생 지역에서도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한국화훼자조금협, 김호 농어업특위 위원장 면담

서울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지난 20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특위)를 방문해 김호 위원장과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과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서울일 자조금협의회 회장은 "현재 우리 화훼농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정

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FTA와 SECA 관련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이고 통 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됐으며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일 자조금협의회 회장은 "화훼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방문해 건의하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5월 20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방문해 김호 위원장(사진 왼쪽)과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과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진원, 꿀 당류 분석 능력 국제 기준 입증

영국 국제 숙련도 평가 포도당 분석 '적합'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이 5월 6일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한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꿀 시료를 활용한 농산물 당류 분석 중 포도당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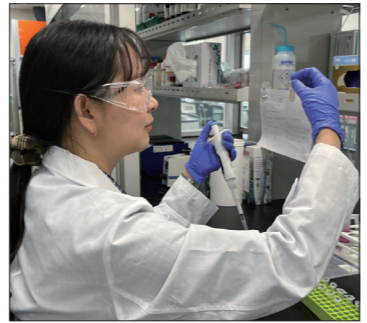
국제 숙련도 평가는 세계 각국의 시험기관이 참여해 식품 성분 분석 능력을 비교하고 검증하는 평가다. 각 기관의 분석 결과를 기준값과 비교해 정확도를 확인하

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적합' 판정을 받는다.

농진원 농생명분석팀은 이번 평가에서 꿀 시료에 들어 있는 포도당 함량을 정확하게 분석해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평가 결과로 농진원의 시험 정확도가 높고, 분석 기술 수준이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이 입증됐다.

당류는 농산물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분이다. 또

한 저장성과 가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꿀은 당 조성 비율을 통해 품질뿐



▲농진원 제공

아니라 벌꿀의 진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농진원은 앞으로 국제 숙련도 평가 참여 항목을 점차 확대해 분석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 품질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수준의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형 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농진원의 농산물 분석 역량이 국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맞는 시험·분석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사과 장기저장 솔루션, 저장비닐 '그린라이트'

사과 장기 저장의 두 번째 조건, '습도관리'

농산물 신선도 유지 솔루션 전문기업 ㈜탑프레쉬가 사과 장기 저장 솔루션의 두 번째 단계인 일라이트 저장비닐 '그린라이트'를 통해 농가의 저장 효율 극대화에 나섰다.

전통적인 저장 방식의 한계를 넘어, 습도를 유지하고 유해가스를 흡착하는 등 농산물 저장 품질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라이트'는 사과와 사인머스켓 등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농가에서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도상구균 등 주요 유해균에 대해 99.9% 항균 효과를 보여, 저장 중 부패균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 일라이트의 원적외선 방사 특성과 항습 효과가 결합되어 저장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농산물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을 넓혔으며, 사과뿐 아니라 배, 포도, 키위, 자두, 샐러드 등 다양한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췄다.

▲ 농가 소득 증대의 든든한 파트너

탑프레쉬 관계자는 "그린라이트는 수확물 보관 효율을 높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소비자에게는 갓 수확한 듯한 신선함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고품질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과 장기저장 솔루션의 핵심 단계로 자리 잡은 그린라이트는 신선도 유지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특허받은 기술력, 현장 맞춤형 라인업

그린라이트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기술(제10-2677340호)을 기반으로 제조되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이다. 농가의 다양한 저장 환경을 고려해 타공형과 무타공형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

제품종류

탑프레쉬 그린라이트(타공/무타공)

대한민국 특허받은 최첨단 특허기술로 만든 제품 (특허 제 10-2677340호)

천연광물(일라이트) 30% 이상 함유
항습효과, 원적외선 방사, 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균/메티균 99.99% 항균 효과

▲경농 제공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솟품 공모전' 개최

60초 영상으로 농촌 가치 담는다...총상금 1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5월 18일부터 '농촌공간계획 솟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살고·일하고·쉬는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가치를 국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로,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최대 3편까지 응모할 수 있다.

출품작은 농촌공간계획을 주제로 한 60초 이내 영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분산적 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2024년 3월 시행)에 근거해 지역 주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의 농촌협약을 통한 통합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모전은 AI 도구 활용을 포함한 영상 제작도 허용하

며, 순수 창작물이라면 표현 방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24일 18시까지다. 참가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한 뒤, 안내된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통24 누리집 또는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기사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9월 중 최종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총 1,2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이 수여되며, 농식품부·농어촌공사·한국농촌계획학회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홍보된다.

시상은 대상 1편(300만 원·농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 2편(각 200만 원·한국농어촌공사장상), 우수상 3편(각 100만 원·한국농촌계획학회회장상), 장려상 4편(각 50만 원·한국농촌계획학회회장상)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전현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전국의 다양한 농촌 공간이 국민의 시선으로 새롭게 발굴·공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지속가능한 食

우리 먹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올까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망을 잇고,
K-푸드 수출시장과 식품산업의 인프라를 만들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촌과 어촌,
우리 식탁을 지속가능하게 연결합니다.

지속가능한 씨앗을 뿌리다

지속가능한 그물을 거두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차리다